

# 윤근강 시에 나타난 길의 의미\* \*\*

김교식(군산대)

## 〈목 차〉

- |                      |               |
|----------------------|---------------|
| 1. 서론                | 4. 생명존중과 고향의식 |
| 2. 식민지 현실과 자아의 갈등 양상 | 5. 결론         |
| 3. 전통에의 지향과 주체성의 모색  |               |

##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말까지 발표된 윤근강의 시 작품에 나타난 '길'의 양상에 주목하여 윤근강 시문학의 미학적 의미를 재고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설정은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에 걸쳐서 작품 활동을 했던 윤근강의 시선이 '길'의 이미지에 맞닿아 있고 이를 통해 시적 형상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2891)

\*\* 이 논문은 2016년 11월 12일 개최된 제4회 윤근강 문학포럼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윤곤강(尹崑崗, 1911~1950)은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생을 마감할 때까지 『大地』(풍림사, 1937), 『輓歌』(동광당서점, 1938), 『動物詩集』(한성도서주식회사, 1939), 『水華』(명성출판사, 1940), 『피리』(정음사, 1948), 『살어리』(정음사, 1948) 등 모두 6권의 시집과 시론집 『詩와 眞實』(정음사, 1948)을 문학적 성과물로 남겼다. 윤곤강은 1931년 『批判』 11월호에 「넛터에서」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하여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일본 유학을 다녀온 후 1934년부터 카프에 관계했으며 이에 연루되어 카프 제2차 검거 때 구속 수감된 바 있다.<sup>1)</sup> 이러한 그의 이력은 작품을 창작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동인으로 작용했으며 비판적 현실인식을 형성하는데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윤곤강의 시는 자연과 인간의 삶을 바탕으로 하여 그만의 독특한 시세계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문학의 암흑기로 명명되는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말까지 서정시 장르의 명맥을 잇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학사적인 가치가 충분하다. 그것은 윤곤강이 작품 활동을 했던 시기가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윤곤강의 시는 식민지 민중의 고단한 삶, 해방의 기쁨과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그리고 조국 분단의 노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차체에 윤곤강 시의 연구는 현대 시문학의 정통성에 기여함은 물론 주체의 다각화와 시대 현실을 개성적으로 모색하고자 했던 윤곤강의 시 정신을 올바르게 읽어내는 준거가 될 것이다.

윤곤강 문학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시 작품 및 시세계의 변모과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sup>2)</sup>, 시론에 대한 연구 및 시론과 시세계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sup>3)</sup>,

1) 김현정에 의하면, 윤곤강은 1934년 2월 10일에 카프에 가입했으며, 제2차 카프 검거사건에 연루되어 1934년 7월부터 12월까지 전북 장수에서 옥살이를 하였다고 한다. (김현정, 「윤곤강의 시 연구」, 『문예시학』 11, 문예시학회, 2000, 227면 참조)

2) 한영옥, 「윤곤강 시 연구」, 『성신연구논문집』 제18집, 성신여대, 1983 ; 제해만, 「시대상과 시적 변용 - 윤곤강론」, 『학술논총』 제11집, 단국대 대학원, 1987 ; 임종찬, 「윤곤강 시 연구」, 『인문논총』 제37집, 부산대 인문과학연구소, 1990 ; 권택우, 「윤곤강 시 연구」, 『문화전통논집』 창간호,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93 ; 이경교, 「윤곤강의 문학사

시인의 전기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 연구<sup>4)</sup>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선행연구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 작품 및 시세계의 변모과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그의 시적 변모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윤근강 시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 시집 및 개별 주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윤근강 시의 다양성과 독창적인 시세계에 의미를 두고 있어서 그의 문학사적 위치를 재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들이 시대적 배경과 함께 윤근강 시의 문학적 특징을 나열하거나 도식적으로 연결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시적 변모 과정의 내적 동인을 제시하지

적 자리], 『목먹어문』 제5집,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1993 ; 양혜경, 「윤근강 시의식의 변모 양상 고찰」, 『동남어문논집』 제8집, 동남어문학회, 1998 ; 김현정, 「윤근강의 시 연구」, 『문예시학』 11, 문예시학회, 2000 ; 양혜경, 「윤근강 시의 미적 거리」, 『비평문학』 16, 한국비평문학회, 2002 ; 송기환, 「윤근강 시의 욕망의 지형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 양혜경, 「윤근강 시의 공간구조 고찰」, 『비평문학』 23, 한국비평문학회, 2006 ; 전민정, 「윤근강 시에 나타난 주체와 길의 상관성 연구」, 신라대 석사학위논문, 2007 ; 유성호, 「윤근강 시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4호, 한국근대문학회, 2011 ; 한상철, 「윤근강 시의 동물 표상 읽기」, 『어문연구』 77, 어문연구학회, 2013 ; 한상철, 「초기 현대시의 동물 표상 연구 - 백석과 윤근강의 동물 시어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5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4 ; 최혜은, 「윤근강 문학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2014 ; 김교식, 「윤근강 시의 동물 이미지와 주체의 자기 인식 양상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4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 3) 윤정룡, 「윤근강 시론에 대한 검토」, 『관악어문연구』 10집, 탑출판사, 1985 ; 이형권, 「시론과 시의 상관적 변모 과정 : 곤강론」, 『한국현대시의 이념과 서정』, 보고서, 1998 ; 김현정, 「윤근강의 비평 연구」, 『비평문학』 제19호, 한국비평문학회, 2004 ; 김지연, 「윤근강의 시론과 시에 관한 연구」, 『성심어문논집』 26, 성심어문학회, 2004 ; 문혜원, 「윤근강의 시론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58집, 한국언어학회, 2006 ; 유영근, 「윤근강의 시와 시론의 관련 양상 연구」, 세종대 석사학위논문, 2007 ; 박민규, 「해방기 시론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2.
- 4) 김용성, 『한국현대문학사탐방』, 현암사, 1984 ; 백영근, 「윤근강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1984 ; 허시강, 「윤근강 연구」, 『호서문학』 제12집, 호서문화사, 1986 ; 김현정, 「윤근강 시 연구 - 당진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5.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둘째, 시론에 대한 연구 및 시론과 시세계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윤근강의 시적 변모 과정을 중심으로 그의 문학관과 시론의 특징을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불어 그의 시론과 시의 상관성을 구명하고 시론의 형성 배경을 시대 의식과 연결하여 고찰하고 있다.

셋째, 시인의 전기적인 고찰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윤근강의 생애를 중심으로 주변인의 구체적인 증언을 토대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윤근강 문학의 생성 원리를 모색하기 위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제시하고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동의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윤근강 시의 내적 동인은 간과한 채 시대 상황과 시적 현상에만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윤근강 시의 미학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구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가 윤근강 시세계의 본질을 구명하기 위해서 시적 형상화의 내적 동인인 길 모티브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바흐진은 문학작품 속에 예술적으로 표현된 시간과 공간 사이의 내적 연관을 ‘크로노토프’(chronotope)라고 명명하고 있다. 즉, “문학예술 속의 크로노토프에서는 공간적 지표와 시간적 지표가 용의주도하게 짜여진 구체적 전체로서 융합된다”<sup>5)</sup>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문학 작품을 생성하는데 관여하는 내적 동인이 바로 크로노토프에 있음을 언급하는 말이다.

바흐진의 문학 내적 형식에 대한 이러한 주장은 시간과 공간의 결합 방식이나 사용되는 비유에 따라서 세계관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는 시인의 문학관의 변화 과정이나 시대정신을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학작품 속의 크로노토프를 시·공간적으로 교차시키면 구체적 전체로서 융합하게 된다. 길은 물리적이고 관념적이기에, 외면적으로는 가시적 거리 또는

5) 미하일 바흐진, 전승희 외 옮김,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비평사, 1988, 261면.

목적지로 인도하는 지표이지만 비가시적인 진리 또는 인간의 성숙 등의 내면적 면모를 나타내기도 한다. 떠남과 돌아옴 또는 출발과 도착이란 계기를 통해 나타나는 길은 인간이 어머니로부터 부여받은 삶을 시작하는 시간이자 모성이 충만했던 자궁으로부터 타락한 세계로 내던져진 공간이다. 그곳은 길의 시작이자 끝이기도 하다.<sup>6)</sup> 이러한 때 길은 그 자체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바흐쎄의 문학 내적 형식에 대한 주장을 연구방법으로 선택하여 윤근강 시의 내적 동인인 길 모티브의 미학적 의미를 모색하는 준거로 삼을 것이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윤근강 시에 나타나는 내적 동인으로써의 길 모티브이다. 윤근강의 시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길의 상징성을 새롭게 조명하여 미학적 의미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윤근강의 시를 주재하는 일관된 논리와 시작 태도를 읽어내는 작업이자 그의 시를 새롭게 바라보는 다시 읽기의 시도이다. 이를 위해 그의 작품에서 길의 의미를 정치하게 밝히고, 윤근강의 시세계와 관련하여 길이 갖는 상징성과 미학적 의미를 전개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윤근강의 시는 식민지 현실과 자아의 갈등 양상, 전통에의 지향과 주체성의 모색, 생명존중과 고향의식 등의 주제적 접근이 가능하다.

## 2. 식민지 현실과 자아의 갈등 양상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윤근강 시의 내적 동인은 길 모티브이다. 일상의 사물이나 사건 혹은 대상이 시인의 구체적인 시적 인식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매개가 필요하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일상의 사물이나 대상이 시인의 시적 인식을 통해 의미를 발현할 경우 그것의 연결고리가

6) 노용무, 「이용악 시에 나타난 길의 의미」,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4, 67~68면.

되는 것이 바로 모티브인 것이다. 모티브는 문학 작품에서 창작과 표현의 기본적인 동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모티브는 시인이 작품을 형상화함에 있어서 시적 대상을 상상력으로 재인식하려는 순간에 기능하게 된다.

길 모티브가 특정 시인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그것이 문학적인 보편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 작품에서의 길 모티브는 인간의 욕망과 본성에 관련이 있으며, 시인이 현실에 대응하는 하나의 문학적인 관습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길 모티브가 특정 시인의 시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연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점은 윤근강의 시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길 모티브의 내적 동인을 찾아 그것의 상징성과 미학적 의미를 재고하려는 것이다.

윤근강의 시에서 길 모티브의 내적 동인으로 추출할 수 있는 미학적 의미는 식민지 현실과 자아의 갈등 양상을 새롭게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근강은 식민지 현실과 자아의 갈등 양상을 '고독'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고독은 개인적인 정서의 발현이라기보다는 식민지 현실에 능동적으로 반응했던 주체의 내적인 욕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땅밑에서 솟아난 어둠이  
몽치고 몽치어 밤이 된다

가시처럼 뺨친 찬 정기  
푸른 별떼를 불러오고

마음 질로 미쳐  
밤길 가벼히 들에 나리면

빛은 말도없이 어둠과 손잡고  
밤의 숨결 이슬되어 귀에 젖다

숲기슭에 번지는 도깨비불처럼

호올로 어둠속에 서글피 웃는 밤

- 「夜景」<sup>7)</sup> 전문

위에 인용한 시 「夜景」에서는 암울한 식민지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시적 자아를 만날 수 있다. 윤근강은 식민지 현실을 ‘밤길’의 시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땅 밑에서 솟아난 어둠이 뭉치고 뭉치어 밤이 된다는 시적 자아의 현실 인식은 “가시처럼 뻗친 찬 정기”에서 비롯하고 있다. 어둠의 반대편에 있는 ‘빛’조차도 말없이 어둠과 손을 잡고, 밤의 숨결은 이슬이 되어 현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가시처럼 뻗친 어둠들이 뭉치어 밤의 시적 공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밤의 시적 공간이 어둠의 불가시적인 시간과 만났을 때 시적 주체의 내적 갈등은 극대화 된다. 「夜景」에서의 ‘밤길’ 이미지는 밤의 시적 공간과 어둠의 불가시적인 시간이 융합하여 예술적인 크로노토프를 생성하고 있는 것이다. 「夜景」이 수록된 시집 『水華』가 1940년에 발간된 것임을 감안한다면, “마음 절로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윤근강의 식민지 현실 인식은 ‘밤길’의 내적 동인에서 자아의 갈등 양상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윤근강의 시에서는 암담한 식민지 현실을 묵도하고 있는 시적 자아의 내적인 갈등을 읽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근강 시에서의 시적 주체는 ‘고독한 자아’일 수밖에 없다. 가시처럼 뻗친 밤의 찬 공기가 ‘푸른 별떼’를 불러오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자아의 내면은 미쳐버릴 것 같은 정서에 맞닿아 있다. 왜냐하면 ‘푸른 별떼’의 빛조차도 말없이 어둠과 손을 잡고 밤의 이슬이 되어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평온함과 위안을 기대했던 ‘푸른 별떼’가 어둠과 손을 잡음으로써 시적 자아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숲 기슭에 번지는 도깨비불처럼 홀로 어둠 속을 헤매는 고독한 자아의 모습에서 서글픈 정서를 읽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윤근강의 시에서 “싸늘한 밤거리를/ 말도없이”(「追憶」<sup>8)</sup> 중에서)

7) 송기한·김현정 편, 『윤근강 전집』 1, 다운샘, 2005, 187면.

8) 위의 책, 90면.

쓸쓸히 걷고 있는 자아의 고독이나 “窟속처럼 캄캄한 앞길”과 “곰뻥이처럼 飛躍을 모르는 生活”(「季節」<sup>9)</sup> 중에서)에서 느끼는 시적 자아의 고독은 암울한 식민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주체의 내적인 욕망을 함축하고 있다. 이처럼 고독한 주체의 내적인 욕망은 그의 시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며, 윤근강의 시를 구축하는 근원적인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푸른江이 있고  
江우에 鐵橋가 누어있고  
鐵橋우에 急行車가 달리는 바로 그옆에 서서,

너는 나에게 말했다

“삶이란 쓰레기통,  
사람이란 버리지보다도 값없는것!”

또 너는 말했다

“남들이 웃고 지나가는 네거리 한복판에서도  
까닭모를 冥府를 나는 그리워하오!”

그다음, 너는 말했다

“몸동이가 마음을 쫓는다면  
강아지처럼 나는 죽었으리라!”

그다음, 또, 너는 말했다

“내가 죽은 다음瞬間에도  
이世上은 조금도 변치않고 남았을테지?”

- 「辨解」<sup>10)</sup> 전문

9) 위의 책, 47면.

「辨解」에서의 시적 자아는 ‘鐵橋’ 옆에 있다. 이 시의 1연에 제시한 “江우에 鐵橋”는 ‘急行車’가 달릴 수 있는 시적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즉, ‘푸른江’에 의해 나뉜 이쪽과 저쪽을 ‘鐵橋’로 연결하여 급행차가 달릴 수 있는 철길의 공간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기차의 선로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라 지역을 이동할 수 있는 동시에 또 다른 세계로의 전환을 꿈꾸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11)</sup> 시인은 철교의 이쪽과 저쪽을 ‘너’라는 화자(話者)와 ‘나’라는 청자(聽者)로 대별하고, 이를 시의 구도에 활용하고 있다. 이 시에서 ‘너’가 ‘나’에게 하는 말들은 매우 절망적이고 침울하기 짝이 없다. 그것은 ‘삶이란 쓰레기통이고 사람이란 버려지보다도 값없는 것’이라거나 ‘까닭모를 冥府를 그리워’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몸둥이가 마음을 쫓는다면 죽었을 것’이라거나 ‘죽은 다음에도 세상은 조금도 변치않을 것’이라는 ‘너’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너’가 ‘나’에게 전하는 말들은 시적 자아의 내면 의식을 표출하기 위한 하나의 시적인 장치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시에서 ‘너’는 절망적이고 침울한 시적 자아의 내면 의식을 들추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너’는 ‘나’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인은 시적 자아의 또 다른 ‘나’를 ‘너’라는 2인칭으로 제시하여 객관성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윤곤강 시인이 「辨解」에서 ‘너’와 ‘나’를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노렸던 효과는 무엇일까? 그것은 암울한 식민지 현실에서 갈등하고 있는 자아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자 했던 노림수로 볼 수 있다. 시적 자아의 내면에 침잠해 있는 수많은 자아들의 갈등 양상을 ‘너’와 ‘나’로 대별하여 제시함으로써 시인의 식민지 현실 인식을 효과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말이다. 엄혹한 식민지 현실에서 ‘鐵橋’ 위를 쉽 없이 달리는 ‘急行車’는 철교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혹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다. 이처럼 급행차가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것은 ‘철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윤곤강은 ‘푸른江’이 구획한 이쪽과 저쪽을 ‘너’와 ‘나’로 형상화하여 식민지 현실에서 고뇌하고

10) 위의 책, 134면.

11) 전민정, 앞의 논문, 32면.

방황하는 시적 자아의 갈등 양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윤근강에게 있어서 ‘철길’은 시적 자아의 갈등 양상을 모색하고자 했던 내적 동인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윤근강의 시에서 고독의 심상은 식민지 현실과 시적 자아의 갈등 양상으로 구현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식민지 현실에 안주하려는 욕망과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사이에서 시적 자아는 “運命을 反逆하는 거리”(『杞憂』<sup>12)</sup> 중에서)를 거닐며 고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실의 절망감과 포기할 수 없는 이상에 대한 갈망이라는 양면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내면의지와 일탈의 욕망은 윤근강의 삶에 대한 치열한 열정과 시인으로서의 숙명<sup>13)</sup>이라고 이해된다. 이처럼 윤근강의 시에서 길 모티브의 내적 동인은 시적 자아의 양가감정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시적 주체의 내적 욕망은 “내가 갈 그길”(『呪文』<sup>14)</sup> 중에서) 위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암담한 식민지 현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인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 3. 전통에의 지향과 주체성의 모색

윤근강 시에 나타나는 길 모티브의 미학적 의미는 전통에의 지향과 주체성의 모색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윤근강은 시집 『피리』의 머리말에서 “헛되인 꿈보다도 오히려 허망한 것은 죄다 버리고/ 나는 나의 누리로, 나의 누리를 찾아, 돌아가리도다/ 돌아가서, 나는 나다웁게 사오리라”<sup>15)</sup>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해방이 가져다 준 민족의식의 재정립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걸맞게

12) 송기한·김현정 편, 앞의 책, 127면.

13) 최혜은, 앞의 논문, 150면.

14) 송기한·김현정 편, 앞의 책, 83면.

15) 위의 책, 212면.

민족정서의 탐구, 전통의 계승 등의 방향으로 시적 관심<sup>16)</sup>을 돌리고자 했던 윤근강의 의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시인의 이러한 의지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공간이 길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살어리 살어리 살어리랏다  
 그예 나의 고향에 돌아가  
 내 고향 흙에 묻히리랏다

- 「살어리(長詩)」<sup>17)</sup> 중에서

1948년에 발간한 윤근강의 마지막 시집 『살어리』에는 표제시 「살어리」가 수록되어 있다. 이 시는 모두 7장으로 이루어진 장시인데 허두에 고려 가요인 「靑山別曲」의 일부를 차용하고 있는 것이 우선 눈에 띈다. 또한, 각 장의 1연은 「靑山別曲」을 모방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sup>18)</sup> 이것은 ‘創造와 模倣이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다’<sup>19)</sup>는 그의 시론을 시 창작에 그대로 실현한 예라고 말할 수 있다. 해방 이후에 발표된 『피리』와 『살어리』에서는 백제 가요나 신라의 향가, 고려 가요 등 우리 민족의 옛 노래를 모방하고 있는 다수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옛 노래를 모방하고 있는 윤근강의 시에서 전통에의 지향을 모색하고자 했던 시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윤근강의 시적 경향은 해방 공간의 시적 변모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름이라 밤 하늘의  
 달은 높이 현 등불 다호라

16) 권택우, 앞의 논문, 210면.

17) 송기한·김현정 편, 앞의 책, 279면.

18) 윤근강은 「靑山別곡」을 패러디한 시작품에서 원전의 형태를 이루는 여러 요소를 차용, 변용하면서도 원전의 담론을 긍정적으로 수용, 계승하고 있다. (박경수, 「현대시의 고전시가 패러디 양상과 담론」, 『국제어문』 38집, 국제어문학회, 2006, 89~91면 참조)

19) 송기한·김현정 편, 「傳統과 創造」, 『윤근강 전집』 2, 다운샘, 2005, 160면.

입하 호을로 가오신 입하  
이 몸은 어찌호라 외오 두고  
너만 호자 훌훌히 가오시고

아으 피 맺힌 내 마음  
피리나 불어 이 밤 새오리  
숨어서 밤에 우는 두견새처럼  
나는야 밤이 좋아 달밤이 좋아

(중략)

아으 비로소 나는 깨달았노라  
서투른 나의 피리 소리언정  
그 소리 가락 가락 온 누리에 퍼지어  
메마른 임의 가슴 속에도  
붉은 피 방울 방울 돌면  
찢기고 흩어진 마음 다시 엉기리

- 「피리」<sup>20)</sup> 중에서

윤근강의 작품 「피리」에서 ‘피리 소리’는 우리 민족의 정서를 환기시키는 객관적 상관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시적 자아는 입을 떠나보내고 “피 맺힌 내 마음”을 피리 소리로 풀어내고 있다. 임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시적 자아는 밤마다 피리를 불며 서러운 마음을 달래고 있다. 또한, 홀로 떠난 임의 길을 등불 같은 달이 밝히고 있는 정경은 떠난 임이 다시 돌아와 주기를 소망하는 시적 자아의 바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적 자아가 떠난 입을 그리워하며 밤마다 부는 피리 소리는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한(恨)의 정서를 일깨우는 매개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별의 정한(情恨)을 피리 소리에 담아 노래하는 것은 떠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서글픔의 정서를 표출하면서도 임의 “찢기고 흩어진 마음”을 “다시 엉기”게

20) 송기환·김현정 편, 『윤근강 전집』 1, 앞의 책, 220~221면.

하려는 의도가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시적 자아와 떠난 입을 연결하는 자리에 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리」에서의 길은 입과 시적 자아의 이별의 공간이면서 떠난 입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기를 회구하는 재회의 공간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윤곤강이 이별의 정한을 노래함에 있어서 피리 소리를 원용하여 한(恨)의 정서를 환기함으로써 전통에의 지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두운 골목길을  
바람처럼 더듬어 가량이면  
꽃다발 대신 가슴에 지닌 시름이  
고개를 든다

뒷간과 부엌과 방과 쓰레기통이  
형제마냥 같이 있는  
골목 골목을 벗어나면  
바람이 옷자락을 물어뜯는 거리

숨도 죽은 밤거리  
저 쪽 어둠 속에  
큰 짐승의 눈깔처럼  
끔빱이는 등불 등불……

등불이 켜진 곳마다  
길은 있는데 큰 길도 있는데  
길은 있어도 길은 없다

별을 보면 어금니가 저리고  
달을 보면 왁새발처럼 서걱이는 가슴  
어머니! 나의 갈 길은  
어느 데에 있나이까?

윤근강의 시에 구현되는 ‘길’의 이미지는 다소 부정적이거나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혼돈의 ‘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에 인용한 시에서도 길은 “어두운 골목길”이거나 “바람이 옷자락을 물어뜯는 거리”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길에서 시적 자아는 “가슴에 지닌 시름이/ 고개를” 들거나 “어금니가 저리고” “확새밭처럼 서걱이는 가슴”을 안은 채로 방황하고 있다. 시적 자아의 이러한 심경은 “뒷간과 부엌과 방과 쓰레기통이/ 형제마냥 같이 있는” 시적 공간의 설정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시적 자아는 비록 “숨도 죽은 밤거리”이지만 “등불이 켜진 곳”에서 ‘희망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여의찮다. 그러므로 등불이 켜진 곳에 “길은 있어도 길은 없다”라는 시적 인식은 엄혹한 시대 상황에서 고뇌하고 방황하는 자아의 갈등 양상을 묘출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윤근강의 시에서 ‘길’은 작품 형성의 내적 동인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여기서 자아는 본질적 자아에 대한 주체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윤근강의 시에서 주체성의 모색은 희망이 없고 막막한 현실 세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길」에서 화자는 “길은 있는데 큰 길도 있는데/ 길은 있어도 길은 없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길은 있어도 “나의 갈 길은”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시적 자아의 내적 갈등은 엄혹한 시대 상황 속에서 주체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고뇌의 증표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어머니! 나의 갈 길은/ 어느 데에 있나이까?”라는 외침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시적 자아의 시선이 ‘어머니’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길은 있어도 나의 갈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서 고뇌하는 화자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깜빡이는 등불”처럼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윤근강의 시에서 ‘길’은 시적 자아가 주체성을 모색하는 시적 공간이면서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자아에게 ‘길 있음’의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기도 하다. 즉, 윤근강 시의 내적 동인으로서의 ‘길’ 이미지는 ‘어머니’에게로 귀의함으로써 시적 자아로 하여금 “큰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 4. 생명존중과 고향의식

인간의 삶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기점으로 한 떠남과 돌아옴의 이중적인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향은 생명의 근원적인 공간이면서 유년시절의 경험들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고향은 떠남의 출발점이면서 돌아옴의 종착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고향은 “그 이전에 자신을 묶어두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다시금 자신의 존재를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해매는 일반적인 여로”<sup>22)</sup>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고향의 이러한 기능이 가능한 것은 바로 길이라는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길은 고향에서 시작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는 길 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길은 삶의 공간을 확장하여 인간들 사이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 준다. 따라서 길은 인간의 구체적인 삶이 구현되는 장소라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길은 인간의 삶에서 표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인생행로에 비유되는 내면적인 의미를 띠기도 한다. 이러한 길에서 인간은 유랑과 모험, 선택과 시련을 경험하고 삶에 대한 탐색과 반성을 축적하여 장소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장소애(topophilia)란 인간과 장소 또는 배경 사이의 정서적 결합이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이 경험한 특정 장소에 대해 느끼는 강렬한 애정이나 태도를 포함한다.<sup>23)</sup> 이런 이유 때문에 문학에서의 길은 장소애를 획득하여 상상력의 보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2

눈을 보니 함박눈을 보니  
내 마음 어릴 적으로 배질 하나다

22) 한계진, 「1930년대 시에 나타난 '고향'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 백석, 오장환, 이용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16집,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5, 91면.

23) 노용무, 「백석 시와 토포필리아」, 『국어문학』 제56집, 국어문학회, 2014, 236면.

검둥 강아지 좋아라 뛰노듯, 나는  
꿈처럼 문을 차고 나아가니

눈은 쌓이고 쌓이어  
길과 눈 내와 골 뒤덮고  
달도 열이랴, 쟁반 다호라  
누리는 대낮도곤 화안한대  
마련한 곳도 없이 나의 마음은  
발길 가는대로 좇니노이다

짜장 고육기도 고운지고  
참말 맑기도 맑은지고  
흰 눈은 내 마음의 모습이요  
둥근 달은 나의 길동무라  
자욱 자욱 새 눈길 밟고  
끝 모르는 곳까지 가고지고  
좁은 집 단간 방에 앉아  
밀국수 먹으며 쳐다보던 지붕의 눈은  
진흙 발길에 짓밟힌 골목의 눈은  
감옥 쇠살창으로 벌히 넘어다보는 눈은  
모두 모두 불꽃 사나웁더니만……

- 「흰 달밤에(長詩)」<sup>24)</sup> 중에서

윤근강 시의 시간적 배경은 주로 ‘밤’에 집중되어 있다. 위에 인용한 시 「흰 달밤에」 역시도 밤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윤근강의 시에서 ‘밤’은 엄혹한 식민지 현실과 무질서한 해방공간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는 내적 동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에 구현된 ‘밤’은 전망이 부재한 ‘어둠’의 이미지로 시적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상호 주관적인 관계 속에서의 시간 인식은 다양성을 내재한 동시에 의미론적인 순환 구조를 구성한다.<sup>25)</sup> 하지만 「흰 달밤에」의 ‘밤’은 ‘눈’과 ‘달’과 ‘길’이 조우하면서 이전의

24) 송기환·김현정 편, 앞의 책, 288~290면.

시와는 다른 의미망을 만들고 있다. 이 시에서 밤은 “내와 곁을 뒤덮”은 눈과 “열이렛, 쟁반” 같은 달이 어우러지면서 대낮보다도 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적 자아는 “흰 눈은 내 마음의 모습”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둥근 달은 나의 길동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적 자아는 “흰 눈”과 “둥근 달”을 동일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적인 것은 “흰 달밤에” “새 눈길”을 따라 “끝 모르는 곳까지” 견고자 하는 시적 자아의 정조(情調)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흰 달밤에」에서 ‘밤’의 시간적 배경은 ‘눈’과 ‘달’과 ‘길’이 서로 조응하면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근강은 해방 이후의 좌우익의 대립, 분열된 모습에서 우리 민족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욕망<sup>25)</sup>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흰 달밤에」에서 겨울밤은 흰 눈과 달이 만나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 이 시에서 겨울과 밤은 봄과 낮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적 의미망을 생성하고 있다. 3장에서 달이 “사랑에 주린 이 따 우혜 진주를 뿌”리거나 “보드러운 입맞춤을 내 가슴에 부어”주는 행위는 “고요한 시름 따라 읊기는” 시적 자아의 발길을 가볍게 하기에 충분하다. 결국, “해도근 더 맑은 빛 지니신 달”빛은 “빛나는 사랑의 햇불로” 시적 자아의 소망을 구체화하고 있다. 여기서 시적 자아의 구체적인 소망은 “고요한 시름”에서 벗어나서 봄과 대낮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집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흰 눈이 쌓인 겨울밤에 시적 자아는 “빛나는 사랑의 햇불로” 생명 의식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밤만이라도 너의 은빛 웃음으로/ 길이 굽어 밝히”는 달빛은 은근한 기다림과 새로운 세계로의 전환을 묘출하면서 “끝 모르는 곳까지 가고”자 하는 자아의 길 떠남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므로 「흰 달밤에」의 흰 눈과 달빛은 새로운 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는 점에서 생명의식의 발현을 기대하게 한다.

25) 양혜경, 「윤근강 시의 공간구조 고찰」, 앞의 논문, 180면.

26) 김현정, 「윤근강 시 연구 - 당진을 중심으로」, 앞의 논문, 86면.

머릿길로 머릿길로 접어들면  
 마음 흠내 먹고 함뻑 취해  
 아지랑이 저어 쪽에 흰 길  
 건너숲엔 새떼 재갈 재갈……  
 슬며시 나리는 노을 속에  
 냇물 흘러 푸른 띠  
 나무다리 우엔 스연한 발자욱  
 하마 무너질샤 건느면  
 작은 마을 어구 비인 술집  
 쾅! 쾅! 짚어맞는 강아지……  
 자욱마다 조약돌 밟으며 밟으며  
 어둠에 쌓여 어둠 속으로 가도  
 머얼고 아득한 나의 마을

- 「마을길」<sup>27)</sup> 전문

「마을길」의 시적 여정은 나의 마을로 되돌아오는 시적 자아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 시에서 나의 마을로 가는 길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그것은 “아지랑이 저어 쪽에 흰 길”이라든가 “슬며시 나리는 노을”, “나무다리 우엔 스연한 발자욱”, “작은 마을 어구 비인 술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적 자아는 “마음 흠내 먹고 함뻑 취해” 있거나 “건너숲엔 새떼 재갈 재갈”거리는 정경 속에서 “자욱마다 조약돌 밟으며” 나의 마을로 돌아오고 있다. 이처럼 시적 자아에게 마을길은 정겨움이 물씬거리는 고향의 시적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고향을 세계의 중심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sup>28)</sup>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머얼고 아득한 나의 마을”에서처럼 시적 자아와 고향 마을의 심리적인 거리가 상당히 멀게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쌓여 어둠 속으로 가도” 마을길의 실체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시적 자아에게 마을길은 유년의 기억 저편에 자리하고

27) 송기한·김현정 편, 앞의 책, 295면.

28) 이·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1995, 239면.

있는 원초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상적인 분위기와 이득한 그리움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윤근강은 대지의 생명력을 바탕으로 하여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의 잔혹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길 모티브 역시 대지에 그 배경을 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윤근강의 시 작품에서 대지는 인간과 자연의 생성과 소멸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처럼 윤근강의 길 모티브는 그의 시세계를 이루는 중심에 있으며, 이를 통해 생명 존중과 고향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대지의 생명력과 어머니는 시적 자아의 생명의 근원이며, 떠남과 돌아옴의 기점과 종점인 고향의 문학적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쳐서 말하면, 윤근강의 시에서 대지와 어머니와 고향은 길 모티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윤근강 시의 내적 동인으로서의 미학적 의미를 고찰하기 위한 시적 공간임에 틀림이 없다.

##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윤근강 시에 나타난 '길'의 양상에 주목하여 윤근강 시문학의 미학적 의미를 재고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설정은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에 걸쳐서 작품 활동을 했던 윤근강의 시선이 '길'의 이미지에 맞닿아 있고 이를 통해 시적 형상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윤근강 시의 길 모티브에서는 식민지 현실과 자아의 갈등 양상, 전통에의 지향과 주체성의 모색, 생명존중과 고향의식 등의 미학적 의미를 추출할 수 있었다. 이번 논문에서 연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윤근강의 시에서 길 모티브의 내적 동인으로 추출할 수 있는 미학적 의미는 식민지 현실과 자아의 갈등 양상을 새롭게 규명하였다는 것이다. 그의 시에서 시적 자아의 고통은 암울한 식민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주체의

욕망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독한 주체의 내적 욕망은 그의 시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며, 윤근강의 시를 구축하는 근원적인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윤근강은 식민지 현실에서 고뇌하고 방황하는 시적 자아의 갈등 양상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에게 있어서 ‘길’은 시적 자아의 갈등 양상을 모색하고자 했던 내적 동인임에 틀림이 없다. 윤근강의 시에서 길 모티브의 내적 동인은 시적 자아의 양가감정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시적 주체의 내적 욕망은 “내가 갈 그길” 위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암담한 식민지 현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했던 시인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둘째, 윤근강의 시에 나타나는 길 모티브의 미학적 의미는 전통에의 지향과 주체성의 모색에서도 확인하였다. 윤근강은 이별의 정한을 노래함에 있어서 피리 소리를 원용하여 전통에의 지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해방 이후에 발표된 『피리』와 『살어리』에 수록된 시들에서는 백제 가요나 신라의 향가, 고려 가요 등 우리 민족의 옛 노래를 모방하고 있는 다수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윤근강은 자기반성의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옛 노래에 담긴 시어와 울조, 향토적인 정서를 적극적으로 모방하고 수용하여 그만의 시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윤근강에게 있어서 전통에의 지향은 철저한 자기반성 속에서 우리 민족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내적 동인의 발로라고 말할 수 있다. 윤근강의 시에서 전통에의 지향은 해방공간의 시적 변모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길’은 본질적 자아에 대한 주체성을 모색하고 있다. 시적 자아의 주체성의 모색은 희망이 없고 막막한 현실 세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윤근강 시의 길 모티브는 생명존중과 고향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삶은 고향을 기점으로 한 떠남과 돌아옴의 이중적인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길은 인간의 구체적인 삶이 구현되는 장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길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표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인생행로에 비유되는 내면적인 의미를 띠기도 한다. 윤근강의 시에 나타나는 길이 대지 위에 있음을 고려할

때 대지는 어머니의 자궁처럼 무한한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 「흰 달밤에」에서 ‘밤’의 시간적 배경은 ‘눈’과 ‘달’과 ‘길’이 서로 조응하면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흰 눈과 달빛은 새로운 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는 점에서 생명의식의 발현을 기대하게 한다. 「마을길」은 유년의 기억 저편에 자리하고 있는 원초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상적인 분위기와 유년 시절의 고향에 대한 아득한 그리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윤근강의 시에서 대지와 어머니와 고향은 길 모티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윤근강 시의 내적 동인으로서의 미학적 의미를 고찰하기 위한 시적 공간임이 확실해 보인다. 이처럼 윤근강의 길 모티브는 그의 시세계를 이루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명 존중의 인식과 고향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 주제어 : 윤근강, 길, 크로노토프, 고향, 현실인식, 전통의식, 장소애, 모티브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송기한·김현정 편저, 『윤근강 전집』 1, 다운샘, 2005.

송기한·김현정 편저, 『윤근강 전집』 2, 다운샘, 2005.

### 2. 단행본 및 논문

권택우, 「윤근강 시 연구」, 『문화전통논집』 창간호,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93, 210면.

김교식, 「윤근강 시의 동물 이미지와 주체의 자기 인식 양상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4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김용성, 『한국현대문학사탐방』, 현암사, 1984.

김지연, 「윤근강의 시론과 시에 관한 연구」, 『성심어문논집』 26, 성심어문학회, 2004.

김현정, 「윤근강의 시 연구」, 『문예시학』 11, 문예시학회, 2000, 227면.

\_\_\_\_\_, 「윤근강의 비평 연구」, 『비평문학』 제19호, 한국비평문학회, 2004.

\_\_\_\_\_, 「윤근강의 시 연구 - 당진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5, 86면.

노용무, 「이용악 시에 나타난 길의 의미」,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4, 67~68면.

\_\_\_\_\_, 「백석 시와 토포필리아」, 『국어문학』 제56집, 국어문학회, 2014, 236면.

문혜원, 「윤근강의 시론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58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

미하일 바흐친, 전승희 외 옮김,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1988, 261면.

박경수, 「현대시의 고전시가 패러디 양상과 담론」, 『국제어문』 38집, 국제어문학회, 2006, 89~91면.

박민규, 「해방기 시론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2.

백영근, 「윤근강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1984.

송기한, 「윤근강 시의 욕망의 지형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 양혜경, 「윤곤강 시의식의 변모 양상 고찰」, 『동남어문논집』 제8집, 동남어문학회, 1998.
- \_\_\_\_\_, 「윤곤강 시의 미적 거리」, 『비평문학』 16, 한국비평문학회, 2002.
- \_\_\_\_\_, 「윤곤강 시의 공간구조 고찰」, 『비평문학』 23, 한국비평문학회, 2006, 180면.
- 유성호, 「윤곤강 시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4호, 한국근대문학회, 2011.
- 유영근, 「윤곤강의 시와 시론의 관련 양상 연구」, 세종대 석사학위논문, 2007.
- 윤정룡, 「윤곤강 시론에 대한 검토」, 『관악어문연구』 10집, 탑출판사, 1985.
- 이경교, 「윤곤강의 문학사적 자리」, 『목벽어문』 제5집,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1993.
- 이-푸 투안, 구동화·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1995, 239면.
- 이형권, 「시론과 시의 상관적 변모 과정 : 곤강론」, 『한국현대시의 이념과 서정』, 보고서, 1998.
- 임종찬, 「윤곤강 시 연구」, 『인문논총』 제37집, 부산대 인문과학연구소, 1990.
- 전민정, 「윤곤강 시에 나타난 주체와 길의 상관성 연구」, 신라대 석사학위논문, 2007, 32면.
- 제해만, 「시대상과 시적 변용 - 윤곤강론」, 『학술논총』 제11집, 단국대 대학원, 1987.
- 최혜은, 「윤곤강 문학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2014, 150면.
- 한계전, 「1930년대 시에 나타난 '고향'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 백석, 오장환, 이용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16집,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5, 91면.
- 한상철, 「윤곤강 시의 동물 표상 읽기」, 『어문연구』 77, 어문연구학회, 2013.
- \_\_\_\_\_, 「초기 현대시의 동물 표상 연구 - 백석과 윤곤강의 동물 시어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5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4.
- 한영옥, 「윤곤강 시 연구」, 『성신연구논문집』 제18집, 성신여대, 1983.
- 허시강, 「윤곤강 연구」, 『호서문학』 제12집, 호서문화사, 1986.

[Abstract]

## The meaning of the Road in the poem of Yoon Gon-gang

Kim, Kyo-shi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nsider the aesthetic meaning of Yoon Gong Gang's poetry with attention on the aspect of "Road" in the Yoon's poem. This problem set-up bases on that eye of Yoon, who had worked during Japanese colonial and independent era, meets on the image of "Road" and that the poetic projection is done with it. The conflict aspect between colonial reality and ego, the tradition-orient and groping of subjecthood, and the life aspect and hometown consciousness, etc. were extracted as inner drivers of Yoon's poem.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below.

First, the aesthetic meaning which extracted as a inner driver of Yoon's poem is to reestablish conflict aspect between colonial reality and ego. The loneliness of poetic ego in his poem implies desire to get out of the colonial reality. Yoon shows conflict aspect of poetic ego about anguish and wandering in the colonial reality. The inner driver of "Road" motive in his poem is often expressed as ambivalence of poetic ego and the inner desire appears on the Road frequently. On this point, we can read the will of poet to accept the gloomy colonial reality critically and to grope progressive alternative. As a result, it is clear that the "Road" is the inner driver of him to grope conflict aspect of poetic ego.

Second, the aesthetic meaning of the road motive on Yoon's poem can be identified with tradition-orient and groping of subjecthood. We can find a lot poems published on 『Piri』 and 『Saleori』 after independence, imitating Korean old songs such as Beakje gayo, Shilla hyangga, Goryo gayo. Yoon built his own

poetic world on the process of self-reflection by imitating and accepting poetic diction, rhythm and rural area emotion actively. In Yoon's poem, tradition-orient is a central role on poetic transformation of independence area. Groping of subjecthood of poetic ego is understood as a will expression to conquest hopeless and boundless reality.

Third, the Road motive on Yoon's poem shows the life aspect and hometown consciousness, Human life is spoken as a twofold work of departure and comeback to hometown. So, the Road means not only superficial meaning on human life but also inner meaning as a path in life. As the Road on Yoon's poem is on the land, the land would be a objective correlative which conceives infinite life like mother's womb. Because the land, mother and hometown are located on central of Road motive, those make poetic space to consider aesthetic meaning of Yoon's poem as a inner driver. Like this, the Road motive is located on the central space which constructs his poetic world, and he shows the life aspect and hometown consciousness with it.

**【Key words】** : Yoon Gon-gang, chronotope, hometown, realize reality, aware of tradition, topophilia, motive

---

---

## 김교식

군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의교수

(54150)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미룡동) 군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전자우편: ks8619@hanmail.net

---

---

이 논문은 2016년 11월 15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12월 11일에 심사 완료되어 12월 12일에 게재 확정되었음.